

제6과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3)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I. 바벨탑, 바벨론, 이 세상

1. 니므롯 (창10:8-10)

창10:8~10 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 1) 세상에 첫 용사. 가인의 문화를 계승. 바벨론 제국이 시작되어짐
- 2) 성격: 땅의 저주로 인한 제한된 자원, 힘 있는 사람이 제한된 자원을 갖게 됨 (적자생존, 약육강식)
- 3) 고통과 싸움의 원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은 이 세상의 힘, 돈과 권력 추구

2. 바벨탑을 쌓음 (창11:1-4):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

창11:1~4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였더라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1)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대항) /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왕.
- 2) 의미: 노아 홍수 후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함. 힘을 과시하고 체제를 견고하게 하려함

3.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심판 받을 이 세상의 실체 (계18:2,20)

계18:2,20 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II.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은혜 언약

1. 아브라함을 부르심 (창12:1-3)

창12:1~3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1) 하나님은 니므롯 문화에 속했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셨다. 이제 아브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
- 2)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새로운 공동체 ('큰 민족')을 염두에 두셨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 체결 (창15:17-18, 17:7-8): ‘피로 세운 주권적 약정 (bond)’

창15:17~18 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17:7~8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나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1) 언약(covenant): ‘쪼갠다, 자른다.’ 과거 고대 중동지방의 풍습. 약속을 어기면 짐승의 죽음처럼 될 것임
- 2) 하나님의 주권적 일방적 약속: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감
- 3) ‘내가 나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공급자, 너를 지켜 줄 것. 은혜 언약

3.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22:17~18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 1) 아브라함 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민족이다. 그러나 그 특권과 사명을 잃어버린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 2)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가 진정한 그의 후손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4. 언약의 표징, 할례 (창17:9-11, 롬2:29, 골2:11-12)

1) 할례는 내 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증을 새기는 것이다. 당시 사회에서 남근은 힘의 원천으로 여겨짐.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생명과 힘의 원천이 그 분께 있음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셨다.

창17:9~11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2) 바울에 따르면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롬2:29)

롬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 신약의 할례: 세례 (골2:11-12)

골2:11~12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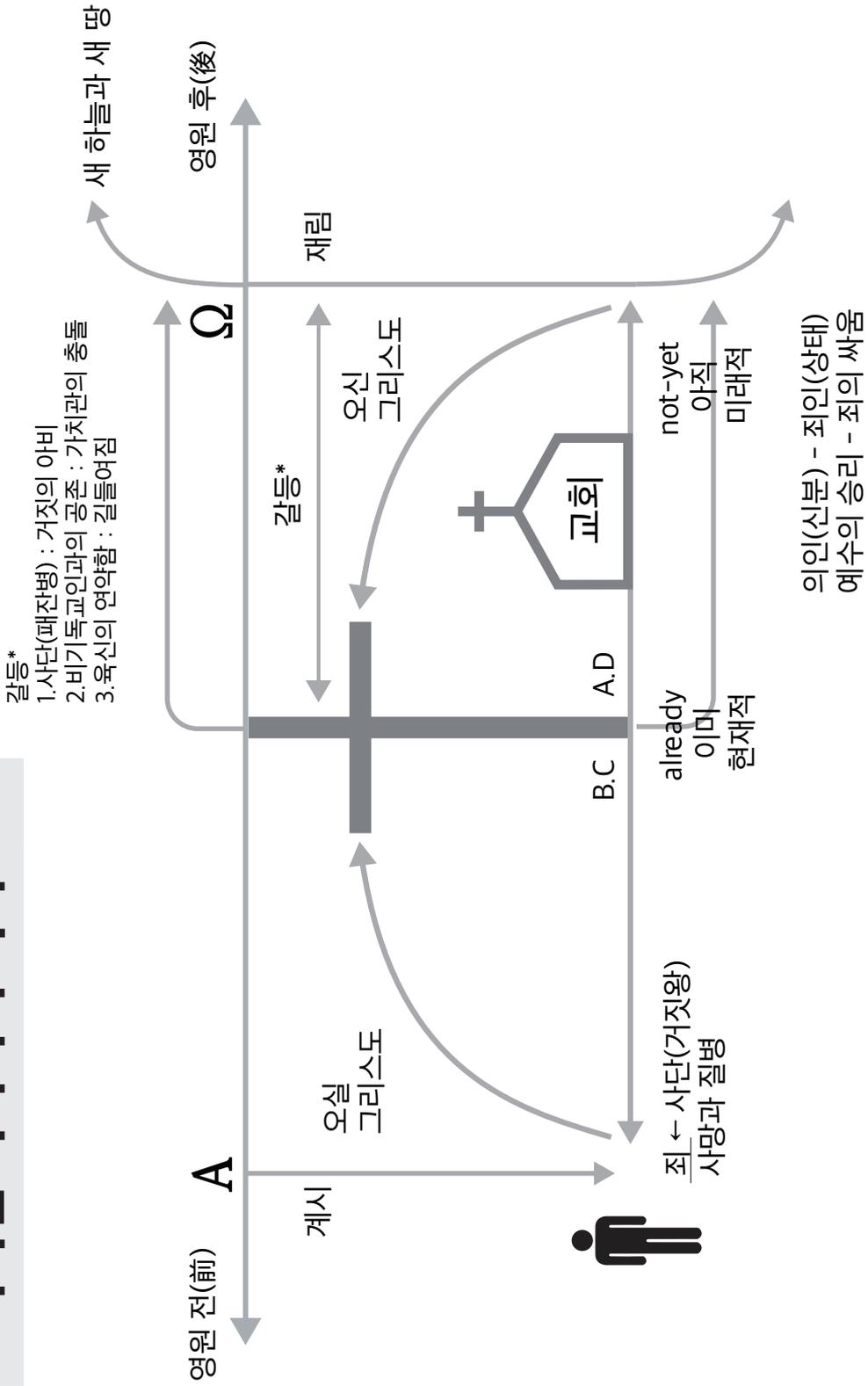
1. **하나님은 가인 문화에 속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와 후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2.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역시 홀로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갈등*

- 1. 사단(패잔병) : 거짓의 아비
- 2. 비기독교인과의 공존 : 가치관의 충돌
- 3. 육신의 연합함 : 길들여짐